

편집국에서



제갈대중 편집국장

미국-중국 무역전쟁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만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아가 이번 양국의 마찰은 무역역을 뛰어넘어 세계 패권을 쥐려는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

외신들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Bloomberg)는 13일(한국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현재 초강대국과 신흥 초강대국이 서로 상대를 평가하고 공존이 가능한 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는데, 원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테네가 기존 강국 스파르타에 불러일으킨 두려움이 양국의 전쟁을 불러왔다고 기술했다.

그레임 앨리스하버드대 교수도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언급하면서 '패권국과 신흥 패권국은 지난 세기 영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처럼 상대에 대한 불안과 불신, 견제 때문에 반드시 전쟁으로 가는 경로에 들어선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몇 주 전부터 미국 군함이 중국의 반발 속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를 향해갔고,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입을 불허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이들은 강력한 경쟁국이 성장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호 불신이 돌아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거나 미국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The New Times)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글로벌 지배력과 위상 등을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수십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경제전쟁 초기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점점 더 많은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기술이전 강요와 같은 관행을 비롯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두고 전방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벨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고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를 차단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 신화사(新華社)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해소 과정에서 '대화하면서 싸우는 것'(fighting while talking)이 협상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으로 수퍼파워로서 자국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의지와 대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중국의 자존심이 정면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의 교착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에 대해 실무협상에서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한 중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금 상황에서는 두 정상의 직접 대화가 막다른 길목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다.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양국간 원만한 타협이 최선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와 재계는 물론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합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社說

대학교수들 '연구윤리 실종' 도 넘었다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상아탑의 연구윤리가 땅에 떨어져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국내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미성년인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 넣고, 부실학회에 참가해 나랏돈을 싹쓸듯처럼 평평 쓰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년간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전국 50개 대학 전·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서울대 등 5개 대학교수 7명은 논문 12건에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적시했다.

이 중 미성년 자녀 8명은 국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다시 추가 조사를 벌였더니 더 많은 끼워 넣기가 드러났다.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를 찾아봤더니 56개 대학 255명이 410건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조사과정에서는 앞선 1차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교수의 자녀 끼워 넣기 행위가 21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논문 실적 기재 금지하고 있다. 편법으로 작성된 논문이 대입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생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지금도 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험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전형 때 얼마든지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교수들의 윤리적 이탈은 부실학회 참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실학회로 밝혀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연구자가 참가한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90개 대학 574명의 교수가 두 학회에 808차례나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학회 참가 관련 조치대상자는 국내 최고 명문이라는 서울대가 42명(49회 참석)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가 23명(34회 참석)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국립대인 전북대의 한 교수는 무려 11차례나 참가해 3천30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축내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와 부실학회 참가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부실학회 참가를 명분으로 국고를 축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아울러 자녀의 입시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끼워 넣기를 한 교수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해당 자녀의 대학 입학도 취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사회 스스로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철저한 교수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논문에 대한 자체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집회·시위 문화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 시위 건수는 역대 최대였지만 우리나라에도 성숙한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해감에 따라 불법 폭력 시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기사회전 적극 보장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집회참가자-경찰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됐다.

기사제보 2580@jndomin.kr

독자기고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때 각별한 주의를

하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공원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3~'17) 동안 놀이공원을 방문한 사람은 7천700만 여명이었고, 월별로는 5월이 1천100만 여명(14.1%), 10월 1천30만 여명(13.4%), 8월 990만 여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놀이기구 사고는 모두 79건으로 111명의 인명피해(사망 5, 부상 106)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기구 조작동과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자가 한눈을 판 사이 어린이 단독행위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가정의 달이 되기 위해

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많은 인파속에 어린이가 밀려 넘어지거나 시설물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놀이에서 돌보고, 접근금지 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아이를 잃지 않도록 잘 감시한다. 놀이공원에서 종종 부모 잃은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어린이가 보호자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해 가까운 안내소의 위치와 도움 받는 방법을 미리 알려둔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자녀와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경우 안전장비는 확실히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분위기에 떠들거나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임영진 능주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실핏줄
생각을 살립니다